# 미션리

2025. 6. 2
월요일(주간)
제 848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년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21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 행 소 : 미션21
인 쇄 처 : (주)대한칼라
대 표 전 화 : (062) 367-9109
F A X : (062) 367-9108
e-mail : phj29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 협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3 기획특집-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화에 대한 고찰 및 대안 -(하)

"무속·기복적 신앙과의 절연, 교회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배제와 혐오로 가득 찬 바리새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약자와 소수자, 타자와 낯선 자를 향해 열려있는 사람과 환대이다."

5 기획특집-광주다움&다움 13-3 '창조와 생태영성 회복'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1.8%가 도시에 거주하며 '진짜 농부'는 1%뿐이다. '전환마을'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한국에서는 '전환마을 은평'이 퍼머컬처학교, 풀학교, 반GMO 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예배 엄수

## 광주NCC · 전남NCC, 5월 18일 오후 2시 30분 광주한빛교회서
## 광주기독단체연합회 27일 5.18민주묘역 찾아 광주정신 기려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8일(주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35에 위치한 광주한빛교회(기장·허정강 목사 시무)에서 엄수됐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광주NCC)와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전남NCC)가 공동 주최한 이번 45주년 5.18기념예식은 1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예배'에 이어 2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정한수 목사(전남동부NCC 회장)의 인도, 나일도 장로(광주YMCA 이사장)의 기도, 김순자 권사(광주YWCA 회장)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NCCK 총무 김종생 목사가 '상처가 사명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는 청년세대(고백교회), 어린이세대(양림교회), 장년세대(서광주교회), 5.18세대(한빛교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메조소프라노 가현주사모(서광주교회)의 특별찬양에 이어 오월의 노래, 광야에서, 광주출정가 등 민중가요를 다 함께 부른 뒤 목회자 중창단이 자녀세대와 함께 '좋은 나라'로 헌금찬양을 드렸다.

박현주 장로(광주NCC언론위원장)의 봉헌기도에 이어 백은경 목사(전남NCC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념예식은 광주NCC 회장 조규성 목사의 사회로 NCCK총무 김종생 목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의 5.18 45주년 기념사에 이어 기장 전국남신도연합회 총무 라승돈 장로, 기장 전국장로연합회 총무 신종식 장로, 기장 여신도회광주연합회 회장 김소춘 권사가 시국성명서를 공동으로 낭독했다.

이어 이날 예배에 드려진 헌금 2,200,000원은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박미경, 이종욱 공동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결단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 후 5.18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기독단체연합회(광기연·대표회장 조우성 장로)는 27일 5.18민주묘역 '민주의문'에서 5.18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그날'의 민주, 정의, 인권,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며 '샬롬'을 추구한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날 광기연 일부 실행위원들은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6시까지 24시간 전남도청에서 항쟁했었던 희생자들의 무덤을 찾아 유공자들의 항쟁 이야기를 전 광주NCC 회장 장헌권 목사로부터 설명듣고, 이들이 추구했던 '샬롬'의 정신을 앞으로 광주 사역현장 곳곳에서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예배가 주일인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한빛교회에서 엄수됐다.

광주기독단체연합회원들이 지난 27일 5.18민주묘역을 찾아 그날의 희생자들과 그 정신을 기렸다.

# "시대의 파고를 넘어 승리의 나팔을 힘차게…"

## 광교협 제39회 정기총회 · 대표회장 이취임식 성료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윤 목사·이하 광교협) 제39회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5월 29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남구 경열로 54번길 24 광주상록교회(담임목사 정석윤)에서 열렸다.

광교협 제39회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광주상록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광교협 수석부회장 나종갑 목사의 인도, 상임부회장 주남식 장로의 기도, 서기 강정원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이종석 목사의 설교, 상임고문 이원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정기총회는 제39회기 임원선거 및 신구임원 교체, 제39회기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기타 안건 토의 등 회무를 처리했다.

3부 이·취임식은 이임회장 이종석 목사의 이임사, 신임대표회장 정석윤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고문 이원제 목사의 격려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장, 양부남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39회기 신임 대표회장 정석윤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대표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지역 1,700여 교회의 연합과 광주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정 목사는 또 "광교협이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교회가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상록교회 첼로팀의 축가와 광고, 송영 후 문희성 상임고문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호신대 총동문회 제62회 정기총회

## 26일(월) 오전 10시 호신대 예음홀에서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장경태 목사) 제62회 정기총회가 5월 28일(월) 오전 10시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았으며,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부 예배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성경통독원 원장 조병호 목사(통독교회)가 강사로 초빙됐다.

세미나 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장한동문상' 시상 및 축하 순서가 있었으며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정기총회 및 공로자 시상이 이어졌다.

호신대총동문회 제62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6일 오전10시 이대학 예음홀에서 열렸다.


성명서 및 공개 질의문

# 김문수 후보 공개지지 목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12.3 불법 계엄령 선포 전후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일부 기득권 개신교 세력의 망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수치였다. 따라서 계엄 사태의 주범들이 파면되고 사법적 심판을 받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움을 참회하며 자숙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을 교회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김진홍, 손현보, 이재훈 목사 등 부패한 종교 기득권 세력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대한민국의 새 출발마저 훼방하며 계엄 사태를 정당화한 인물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실 이번 대선은 의미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다. 윤석열 친위대가 앞장서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부패한 종교 기득권세력이 함께 일으킨 대한민국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출발점에 서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다시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불법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누구인가? 그는 계엄 정권의 충실한 협력자였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에도 이를 두둔하고 정당화하였고,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이를 비판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겨우 잘못됐다고 인정한 사실상 계엄정당화의 대표선수다.

따라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를 지지한다는 말은 요건도 되지 않는 계엄령 발동과 군대 출동과 불법 체포 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망령된 짓이다. 도대체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의 명의를 도용해 거짓을 일삼는 부패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추태를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의를 외친다고 믿는다면, 다음의 질의에 떳떳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 질의는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이자, 교회 공동체 내부의 양심적 요청이다.

공개 질의문

1.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무속(천공, 건진법사) 및 이단(신천지, 통일교) 세력과의 유착 등 종교적 비선정치를 일삼았다. 게다가 12.3 계엄을 전후하여서는 김진홍, 박한수, 손현보 등 일부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의 하수인 노릇까지 해 왔다. 지금이라도 그 과오를 참회하고, 자숙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2. 김진홍, 손현보, 이재훈 등 김문수 후보 지지 목사들은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사유만을 근거로 국무회의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12.3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에 시종일관 동조했다. 그렇다면 향후 지지하던 대통령이 헌법 요건과는 무관한 계엄을 또 선포해도 다시 지지할 것인가? 또한, 이제라도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3. 김진홍, 손현보, 이재훈 등 김문수 후보 지지 목사들은 소위 부정 선거론과 사전투표 위험론에 충실히 동조해왔다. 그렇다면 더구나 윤석열 정부마저 무너진 채 치르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더욱 부정선거가 의심될 텐데, 선거 참여를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선거 결과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공정선거, 낙선되면 부정선거라고 할 것인가?

지금껏 자신들의 신념과 행동이 옳다고 믿는다면,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욥 38:2~3)

2025년 5월 30일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 목사들의 답변을 바라는 사람들 일동
-개인 : 강경민, 강선실, 강성열, 강영건, 강진석, 강호숙, 고상환, 고연숙, 공영환, 곽진희, 구교형, 구윤철, 권윤영, 권은혜, 권정후, 금원식, 김규돈, 김규열, 김근희, 김나현, 김난희, 김남희, 김동주, 김동훈, 김명혜, 김선희, 김성빈, 김새윤, 김소희, 김수진, 김수현, 김숙희, 김승원, 김영준, 김은희, 김인옥, 김정원, 김정태, 김주실, 김주열, 김진영, 김태연, 김현미, 김현숙, 김현숙, 김현호, 김혜경, 김호준, 나상훈, 남승권, 노선희, 류경숙, 민을님, 박경수, 박금희, 박도준, 박득훈, 박상동, 박성민, 박수창, 박용수, 박원섭, 박원우, 박은희, 박인경, 박점숙, 박정인, 박종현, 박지민, 박철우, 박홍표, 방인성, 배현주, 백승원, 백종국, 백효인, 서동진, 서산나, 서선례, 서일향, 서필례, 서 한, 석상훈, 송연수, 송일순, 신동은, 신명은, 신미경, 신상숙, 신수희, 신주현, 신창옥, 신향미, 신형용, 심경보, 심영섭, 안정심, 안철순, 양미화, 양재숙, 양희삼, 엄명희, 오기만, 유면옥, 유연정, 유은식, 유진순, 유한규, 유혜영, 윤기원, 윤요셉, 윤환철, 이갑희, 이경진, 이광우, 이광식, 이광하, 이근우, 이동규, 이명선, 이명재, 이박행, 이방욱, 이병삼, 이병주, 이선엽, 이선영, 이성근, 이성은, 이승동, 이승장, 이승호, 이영애, 이용훈, 이우준, 이운기, 이은정, 이재영, 이종영, 이지현, 이채민, 이태숙, 이현래, 이현숙, 임관혁, 임미숙, 임 원, 임호선, 임희숙, 장주대, 정강희, 정미숙, 정미화, 정성규, 정요한, 정은순, 정종훈, 정진호, 정채경, 제갈진, 조규성, 조미순, 조미은, 조순아, 조은경, 조한나, 진성아, 최문선, 최성희, 최은미, 최은중, 최제훈, 최현범, 최현숙, 표계선, 하유지, 한영옥, 한영희, 허유미, 허은종, 현연희, 홍기연, 홍덕진, 홍인규, 홍재원, 황미남, 황용택, 황충기 (192명)

단체 : 기독교민주시민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사랑누리교회, 성서한국, 십자가로교회, 양희삼tv-카타콤, 인권실천시민행동, 전주열린문교회,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13개)